

[준기획] >> 3면

휴학생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획] >> 5면

우리대학 ESG 경영의 현주소

[사회문화] >> 8면

현수막 난립

[학술] >> 9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 팀플과 학회는 늘어나는데 열악한 서울캠퍼스 공유 학습 공간

△공모전 및 프로젝트 준비△동아리 및 학회 세션△수업 내 팀플 등 학생 간 협업활동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우리대학 내 공유 학습공간은 운영 시간과 편의성 측면에서 아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우리대학 공유 학습 공간 현황△우리대학 공유 학습 공간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 4면에서 계속

강승주 기자 12seungju@hufs.ac.kr

### 우리대학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최고등급 획득

우리대학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 입학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대입 전형 운영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표 재정지원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585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부터 이번 해까지 4주 사업 기간의 두 번째 연차평가로 지난해 사업 운영 실적과 다음 해 및 오는 202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 연계성△대입 평가 역량△사회적 책무성△예산 운영 총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해 △S등급 18개교△A등급 55개교△B등급 18개교를 선정했다. 우리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향후 사업비 10%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학전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방향에 맞춘 대입전형 운영에 힘써왔다. 특히 고교학점제 과목 개설 지원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정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입학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입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성 이행에도 힘쓰고 있다.

이재목 우리대학 입학처장은 "변화하는 고교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고교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안정적인 대입전형 운영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 입학처 'HUFS 지원전략 설명회' 경기권 행사 성황리에 완료... 8개 권역 순회 시작

우리대학 입학처는 지난달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HUFS 지원전략 설명회' 경기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2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대학의 △입시결과△전형 운영 방향△지원전략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학처는 △실제 합격사례 분석△우리대학 소개△재학생 입시 경험 공유△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전형 준비 방향△2026학년도 수시 및 정시 입시결과 분석△2027학년도 전형 주요사항 및 지원전략 등을 소개했다. 또한 △모집단위별 특징△실제 입시 결과△합격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전형별 정보를 안내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2027학년도 HUFS 지원전략 분석 자료집과 학생부위주 및 논술전형 입학가이드북 등 입시 자료도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재학생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재학생들은 자신의 지원 과정과 대학생활 경험 등을 소개하며 참가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 A 씨는 "단순한 전형 소개가 아니라

실제 입시 결과와 지원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입시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우리대학 입학처 관계자 B 씨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하고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교육 기반의 대입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대학은 이번 경기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서울권△인천권△전라권△제주권△충청권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각 권역의 입시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HUFS 지원전략 설명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설명회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형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진학 지원 콘텐츠도 확대할 것이다.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Chilsung CIDER**

100% RECYCLED BOTTLE EXCEPT CAP & LABEL

기업자기마크

칠성사이다가 대한민국 최초 100%재생 MR-PET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든 음료가, 우리나라가, 내일의 지구가 맑고 깨끗하게 바뀌는 날까지-

**최초가 모두를 바꾼다**

대한민국 최초 탄소 배출을 낮추는 100% 재생 MR-PET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 10개 기업 기준 (25:10:10)  
MR-PET 100%는 500ml 페트에만 적용됩니다.  
소마기마크는 식용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업자기마크입니다. | 제조·판매: 롯데칠성음료(주)

# 2026 퀸쿠아트리아(QUINQUATRIA)가 빛나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우리대학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서 '2026 QUINQUATRIA Luminous : 빛나는'의 기조로 대동제가 진행됐다. 이번 대동제는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공약 중 '두 번 만나는 퀸쿠아트리아'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새롭게 확장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양일간 △무대 콘텐츠△바 이킹△부스 콘텐츠△포토부스△푸드트럭△플리마켓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이번에 부스가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해서 즐기는 재미가 있었다"라며 "다만 \*\*팅을 주제로 한 부스가 많아 약간 획일화된 느낌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대동제 메인 콘텐츠로는 △빛의 오락실△빛의 공방△원데이 클래스△아케이드가 진행됐다. 빛의 오락실에는 △물총게임△미니컬링△스톱워치 게임이 마련돼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빛의 공방 및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체험을 통해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서브 콘텐츠로는 스탬프 투어와 드레스코드가 존재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이번 대동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무대 콘텐츠였다. 아티스트 라



인업이 공개되자마자 우리대학 익명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서 뜨거운 반응이 나왔다. 무대 콘텐츠는 1일차와 2일차 모두 학생들의 △노래△춤△랩△밴드 공연으로 시작됐다. 진행은 MC 섭이네가 맡아 지루할 틈 없는 무대를 만들어냈다. 이후 1일차에는 △하이프린세스(H/PE Princess)△실리카겔(Silica Gel)△나우아임영(NOWIMYOUNG)△김하

온(HAON)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축제의 열기를 이어가며 첫 날을 마무리했다. 2일차에는 우리대학 응원예술위원회의 아이기스와 오디오필이 함께 무대를 만들어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고 이후 △KickFlip△CAMO△aespa의 공연으로 이번 대동제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재학생 이선민(영어·ELIT 24) 씨는 "대중에게 유명한 아티스트와 우리대학 출신의 아티스트가 어우러진 무대로 더욱 즐거웠다"라며 "높았던 기대만큼 무대를 즐기러 온 학우가 많았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설캠 총학은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한만큼 아티스트 수요 조사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사에 전달했다"라고 밝혔으며 또한 아티스트 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라인업 공개 일정을 최대한 늦춰 무분별한 외부인 출입을 낮추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2026 퀸쿠아트리아는 '빛나는'이란 기조에 맞춰 우리대학의 다양한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각자의 빛이 모여 하나의 축제를 완성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간 대동제였다. 다양한 콘텐츠와 학우들의 뜨거운 환호가 함께한 이번 대동제는 학우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빛나는 순간이 됐다.

현재우 기자 10jaewoo@hufs.ac.kr

## 우리대학, 올라운더스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 MOU 체결

우리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와 주식회사 올라운더스(ALLROUNDERS)는 지난달 29일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잡카페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대학이 보유한 다국어 및 지역학 교육 역량과 올라운더스의 글로벌 사업 역량을 결합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업 연계 교육과정 공동 개발△기타 산학협력 과제 발굴 및 추진△외국어 및 글로벌 특화 인재 채용 및 운영△현장실습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지 올라운더스 대표(이하



김 대표)△박경은 우리대학 태국학과 학과장△송채원(아시아·태국어 22, 이하 송 씨) 씨△신근혜 대학일자리플러스 본부장(이하 신 본부장) 등이 참석했



다. 특히 송 씨는 재학 중 올라운더스의 태국 사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례로 소개되며 이번 협약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및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신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글로벌 인턴십과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협약 추진 과정에서 한국외대가 보여준 관심과 환대에 감사드린다"라며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한국외대 학생들과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며 우수 인재 양성에 함께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 우리대학 '제2회 수도권지역 교수테니스대회'에서 첫 단체전 준우승



우리대학 교수테니스회가 지난달 23일에 열린 '제2회 수도권지역 교수테니스대회'에서 단체전 B조 준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 없이 단체전 경기만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경인교육대학교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우리대학 2개 팀을 포함해 총 45개의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그동안 우리대학 교수테니스회는 △2018년도 제47회 여성부 개인전 우승△2019년도 제48회 장년부 개인전 우승△2021년도 제50회 일반부 개인전 우승 등 개인전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는 창립 이래 첫 단체전 입상이라는

패거를 이루며 우리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교수테니스회 회원들은 그동안 합숙훈련과 외부 클럽 교류전 등을 통해 꾸준히 실력을 다지며 대회를 준비했고 이는 개인전과 달리 팀워크와 고도의 전략적 운영이 요구되는 단체전에서의 준우승이라는 영광스러운 결실

로 이어졌다. 임경순 우리대학 교수테니스회장은 "회원들이 연구와 교육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한 준 덕분에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구성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 우리대학 G-RISE사업단, '2026 표준현장실습 매칭박람회' 개최



우리대학 G-RISE(Gyeonggi-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사업단은 지난달 26일 글로벌 캠퍼스 백년관 1층 컨퍼런스홀에서 '2026 표준현장실습 매칭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에게는 전공과 연계한 산업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에게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스펙스 페이스△㈜셀트리온스킨큐어△㈜클리오라이프케어 등 16개 기업과 우리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현장실습 직무와 기업별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학생들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표준현장실습은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전공과 연관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 기업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상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약 40명의 학생을 현장실습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해당 기업에서 이번 해 2학기 또는 동계 계절학기 중 표준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행사장에는 기업 상담 부스와 함께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부스도 마련됐다.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 일정△운영 규정△지원 절차△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이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윤석 우리대학 G-RISE사업단장은 "이번 박람회는 학생과 기업이 사전에 만나 현장실습 직무와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 강화는 물론 기업의 인재 발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 휴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캠퍼스를 위해

휴학은 대학생에게 있어 휴식을 넘어 △건강 회복△진로 탐색△학비 마련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 휴학생을 포함한 많은 휴학생

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제한받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휴학생 현황 및 학교생활 제한 사항△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휴학생 현황 및 학교생활 제한 사항

김영일교육컨설팅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의 재적 대비 휴학생 비율은 22.6%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들은 대학생의 휴학률이 높은 이유로 취업난을 꼽았다.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인턴이나 내외 활동을 통해 스펙을 쌓고자 휴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우리대학 역시 '2025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학부 휴학생이 △26.03%△25.64%△24.64%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대학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하는 상황에서 우리대학 휴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대학 휴학생은 현장실습업무지원 시스템에서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을 지원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학점 인정을 전제로 실습 기관에서 수학하는 것이므로 해당 학기에 등록한 재학생만 실습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휴학생 A 씨는 "다른 학교는 휴학생도 현장실습이 가능한데 왜 우리대학은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휴학생은 총장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 총장 선거의 총장후보선출규정 제5장 제22조에 따르면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학부생'에게만 학생으로서 선거인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저번 학기 총장 선거 때 휴학 후 이번 학기에 복학한 우리대학 재학생 B 씨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휴학생 역시 향후 복학하면 학교생활을 이어갈 예정인 경우가 많다"라며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휴학생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적절하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B 씨는 "단기 선거가 진행되는 시점에 휴학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이 없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학기부터 휴학 중인 우리대학 휴학생 C 씨 역시 "휴학생이라든 학교에 적응을 두고 있고 언제든 복학 예정인 우리대학 학생이므로 휴학생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것이 의문스럽다"라고 밝혔다. 한편 총장 선거와 달리 학생 자치에서는 준회원 신분의 휴학생이 정회원 등록을 통해 △선거권△피선거권△학생총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학생 대표가 휴학생 신분으로 활동할 수 없는 점도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우선 현재 대학 방침상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성 장학금은 재학생 신분일 때만 수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학생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대표자들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휴학생 대표자는 장학금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에서의 권한도 축소될 수 있다. 일례로 나민석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전 총학생회장은 임기 중인 학기에 휴학 상태였다는 이유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위원이 아닌 참관인 신분으로 강등돼 참여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휴학생은 총학생회(이하 총학)이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가 제한되기도 한다. 설캠 총학은 "대부분의 행사와 사업 참여권은 사실상 동등하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밝히며 "설캠 재학생이 납부하는 특정 재원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참여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글캠 비대위)는 "비대위가 운영하는 정책과 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참여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정책과 사업은 재학생의 등록금 및 자치회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한된 자원 안에서 먼저 재학생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글캠 비대위는 이에 대해 "재원을 부담하는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휴학생 역시 우리대학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휴학생이 학교와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휴학생의 현장실습 참여와 관련해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일례로 가천대학교는 단기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6-10학기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한양대학교 역시 계절 현장실습의 경우 휴학생도 가능하다.

또한 총장 선거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학생 자치에서 준회원 신분의 휴학생이 정회원 등록을 통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면 총장 선거에서도 휴학생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총장의 정책이 현재 재학생뿐 아니라 향후 복학할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교내 민주주의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휴학생 대표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학교와 총학 측의 원활한 합의가 필요하다. 건국대학교 총학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피선거권 행사를 희망하는 자는 휴학 증명서를 통해 후보자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총학 정책과 제휴 사업의 경우 자원 부담이라는 형평성 원칙을 존중하되 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글캠 비대위는 "제휴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조건△예산 및 운영상의 문제 △참여 대상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모든 사업을 휴학생에게 동일하게 개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히며 "그럼에도 사업 구조상 휴학생의 참여가 가능하거나 총학 차원에서 휴학생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휴 업체에서 증빙 자료로 학생 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를 통해 재학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및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학생의 권리를 찾는 것은 교내 민주주의와 학생 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우리대학이 이들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캠퍼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 후속보도

# 우리대학의 배리어 프리 환경, 여전히 남은 과제

지난 1069호에서는 우리대학의 배리어 프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다뤘다. 이번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차별 없는 캠퍼스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지난 4년간 우리대학이 장애 학생을 위해 해결한 점과

남아 있는 문제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번 기사에서 △우리대학의 배리어 프리 개선된 점과 남은 과제△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 ◆우리대학의 배리어 프리 개선된 점과 남은 과제

배리어 프리란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서비스 △시설△정보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법적으로도 규정하고 있는 주요 정책으로 우리대학 또한 장애 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대학은 장애 학생 지원을 학습 분야와 학생 생활 분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대학은 장애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배리어 프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대학은 지난 1069호에서 설캠을 지나는 총 5대의 버스의 저상버스 평균 도입률은 64.8%라고 보도했다. 이후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동일한 5대의 저상버스 평균 도입률은 86.8%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120번 버스 69%△147번 버스 92%△261번 버스 82%△273번 버스 100%△1222번 버스 91%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보였다.

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존재한다. 먼저 우리대학은 장애 학생 특별 전형이 마련되지 않은 대학 중 하나로 장애인 입학생의 수가 적은 만큼 지원도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대학알리미 '장애 학생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대학 학부와 대학원에는 총 5명의 경증 및 중증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이다. 장애 학생 지원 인력으로 2명의 센터장이 임명됐으나 전담 인력은 0명이며 겸직 인력은 6명이다.

또한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장애 학생의 이동 동선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해결돼야 할 사항이다. 지난 2020년에 완공된 스마트도서관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같은 일부 편의시설이 마련됐지만 △도서관 1층 로비△스마트플라자△자료실△휴플랫폼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해당 시간대 이후에는 열람실 이용을 위해 도서관 경비실 쪽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지만 해당 출입구에는 휠체어 이용 학생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외대앞역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지난 1069호 이후 외대앞역에 승강기가 설치됐지만 개찰구까지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역사 내에서는 승강기를 이용할 수가 없다. 또한 계단을 대신할 휠체어 리프트 등 대체 이동 수단이 없어 지하철로 우리대학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교통수단 이용에 제약을 느낄 수 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모두가 공평하게 다닐 수 있는 우리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보충하고 시설을 점검해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에 대해 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와 한양대학교(이하 한양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중앙대 본교에는 18명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이며 전담 인력은 2명이다. 또한 한양대 본교에는 학부와 대학원을 통틀어 총 48명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14명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 한양대에선 장애 학생 지원 전담 인력으로 3명을 두고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는 교내에서 장애 학생의 실제 이동과 생활환경까지 고려한 배리어 프리 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서울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휠체어 이용 학생의 실제 이동 동선을 조사해 'SNU BBF(Barely Barrier Free) Wheelability 캠퍼스 맵'을 제작했으며 해당 지도에는 △건물별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여부△경사로 유무△자동문 설치 여부△장애인 화장실 위치△출입문 폭△휠체어 접근 가능 강도 정보 등이 시각화돼 있다. 우리대학 역시 장애 학생의 실제 동선을 파악해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더

불어 우리대학도 배리어 프리 지도를 제작해 경사로나 승강기 미설치 건물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위해 외대앞역의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 일례로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는 전 역사에 1역사 1동선 확보를 완료해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단절 없는 이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노원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주요 역사에 승강편의시설 10대를 설치 완료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승객은 공사 민원 창구를 통해 남구로역에 새롭게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대해 "어르신이 나 장애인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설치됐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전 역사 10분 내 환승을 목표로 환승 시간이 긴 역사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긴 환승 시간 등으로 민원이 많았던 △건대입구△교대△노원 등 13개 역에 내부 환승 통로와 추가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환승 시간이 평균 23.3분에서 9.8분으로 줄어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대앞역 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역사 시설 보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설캠 총학 역시 국가 표준 배리어 프리 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경사로 증축 및 점자블록 추가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총학은 배리어 프리 환경을 위해 우리대학 장애 학생 지원센터와 학교 측이 함께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정한 배리어 프리 캠퍼스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시설 정비와 밀착형 지원 시스템이 모두 마련돼야 한다. △총학△학생△학교 본부가 다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받는 평등한 교육 환경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 팀플과 학회는 늘어나는데... 열악한 서울캠퍼스 공유 학습 공간

최근 △공모전 및 프로젝트 준비△동아리 및 학회 활동△수업 내 팀플 등 학생들의 협업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공유 학습 공간은 이러한 활동을 하기에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설캠에 마련된 대부분의 공유 학습 공간은 오후 11시면 운영이 종료되며 이용 방식에도 제한이 있어 문제로 언

급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교외 카페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금전적 부담도 적지 않다. 본 기사를 통해 △우리대학 공유 학습 공간 현황△우리대학 공유 학습 공간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우리대학 공유 학습 공간 현황

대학 생활에서는 △공모전 및 프로젝트 준비△동아리 및 학회 활동 △수업 내 팀플 등 다양한 협업 활동에 필요한 공유 학습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다.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우리대학은 인문계열 학과가 많아 팀플이 포함된 수업 비중이 높은 편인 것 같다”라며 “한 학기에 3~4개의 팀플에 학회 및 동아리 활동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매주 팀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최근 △교내 공간 부족△비대면 회의 플랫폼 발달△학생들의 일정 조율 문제 등이 겹쳐 비대면으로 팀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면으로 회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재학생 윤서우(LD 24) 씨는 “비대면 회의는 발언이 자주 겹치고 대면 회의 대비 논의의 시간이 길어진다”라며 “동아리 활동 준비처럼 장시간 논의가 필요한 활동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때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현재 설캠에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학습 공간으로 △도서관 그룹스터디룸△단과대학 세미나실△애플라운지△MBA 라운지 등이 마련되어 있다. 도서관 그룹스터디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한국외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애플라운지와 MBA 라운지는 별도의 예약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과대학 세미나실의 경우 공유 학습 공간의 마련 여부와 예약 방식이 단과대학마다 상이하다. 경영대학 세미나실은 경영대학 학생회에서 관리하며 2인 이상의 경영대학 재학생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다. 서양어대학 세미나실 역시 서양어대학 학생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서양어대학 재학생의 경우 구글 폼을 통한 사전 예약 후 주 4시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LD 학부와 아시아언어문화대학은 별도의 세미나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우리대학 공유 학습 공간의 문제점

현재 우리대학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 학습 공간들은 대부분 오후 11시 이후 이용이 불가능하다. 우리대학 재학생 B 씨는 “강의 시간이나 개인 일정으로 인해 팀플 회의를 밤 시간대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저녁 이후에는 교내에 제대로 협업 활동을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내 공유 학습 공간이 야간 시간대에 운영되지 않아 학생들은 주변 카페나 외부 스터디룸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해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대학 재학생 C 씨는 “야간 시간대에 교내에서 팀플을 준비할 공간이 없어 근처 카페를 찾았지만 자리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비용

부담 또한 문제로 떠올랐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근 카페의 음료 가격은 한 잔당 5,000~6,000원 수준에 형성돼 있어 팀 활동이 잦을수록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대학 재학생 D 씨는 “오후 11시 이후로는 교내에 팀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 근처 카페에 가게 될 때 불필요한 음료값을 지출하게 되며 팀 활동을 자주 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우 우리대학 총괄지원팀장(이하 이 팀장)은 건물을 24시간 개방할 경우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팀장은 “현재도 야간 시간대에 캠퍼스 내에서 학생이나 지역 주민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인건비 등의 문제로 경비 인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의실이 많은 건물을 추가로 개방할 경우 음주 사고나 각종 범죄에 학생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시설 개방 시간은 학생들의 요구와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시간 내에 공유 학습 공간을 사용해도 한계가 있다. 도서관 그룹스터디룸은 △예약 인원 일부의 선출입 어려움△이용시간 제한△방음 부족△휴일 사용 불가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대학 재학생 김지석(경영 21) 씨는 “도서관 그룹스터디룸의 경우 예약 인원의 70% 이상이 출입해야만 문이 열린다”라며 “일찍 도착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어려워 밖에서 무의미하게 서서겨리게 돼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음이 충분하지 않아 소리가 새어 나가는 것 역시 스터디룸의 아쉬운 요인이다”라고 언급했다.

애플라운지와 MBA 라운지 역시 콘센트 부족과 비좁은 책상 등 편의성 부분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애플라운지와 MBA 라운지 모두 좌석 수에 비해 콘센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대학 재학생 김재광(사회·정외 21) 씨는 “현재 애플라운지와 MBA 라운지는 책상 수 대비 콘센트 수가 부족하다”라며 “아예 콘센트가 없는 자리도 존재해 장시간 노트북을 사용하기엔 불편함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우리대학 재학생 김휘영(경영 24) 씨는 “특히 MBA 라운지의 경우 수업 전후로 유동 인구가 너무 많고 테이블 크기가 작아서 여러 명이 노트북이나 자료를 펼쳐놓고 팀 활동을 준비하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하 캠퍼스에 위치한 애플라운지의 경우 공연분과 동아리와 풍물패의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과 인접해 있어 소음 문제도 제기된다. 우리대학 재학생 E 씨는 “애플라운지에서 팀 활동을 준비하면서 소음으로 인해 방해받았던 경험이 있다”라며 “소음이 발생하는 공간과 학습 공간인 라운지가 인접해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공유 학습 공간은 학생 간 협업 과제가 증가하고 공모전 및 프로젝트 준비가 대학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공유 학습 공간들의 규정과 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서관 그룹스터디룸 이용 및 출입 규정 완화△라운지 내 콘센트 확충△비품 개선 등 실질적인 이용 환경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공유 학습 공간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설캠에서 학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유 학습 공간은 사실상 애플라운지가 유일하다. 반면 △경희대학교△연세대학교△한양대학교(이하 한양대) 등 타 대학들은 캠퍼스 내 여러 라운지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협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양대의 경우 수자겸 기계관을 신축하며 학생 라운지와 스터디룸을 건축 설계에 반영했다. 일부 건물과 강의실의 24시간 개방 역시 고려해 볼 만하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로 인해 당장은 전면 상시 개방이 어렵다면 우선은 시험기간에만 시범적으로 24시간 개방하는 등 상시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대학은 학생증 및 모바일 출입 시스템을 활용해 야간 시간대에도 학생들이 교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재학생 F 씨는 “고려대학교의 경우 △우정정보관△지하 캠퍼스△학생회관 등 일부 시설을 학생증을 통해 24시간 출입할 수 있다”라며 “해당 시설 내의 라운지나 열람실에서 공부나 팀 활동을 밤새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대학교는 시험기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부 강의실을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야간 시간대에 일부 건물과 강의실을 추가 개방하는 방안은 타 대학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공유 학습 공간 부족 문제뿐 아니라 시험기간마다 반복되는 열람실 좌석 부족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강의실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자습 공간 역시 확대돼 중앙도서관 내 열람실 좌석 부족 문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내 구성원들의 협업 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공유 학습 공간은 더이상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학생들이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협업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공간 확충과 운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실효성 있는 공유 학습 공간 확보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강승주 기자 12seungju@hufs.ac.kr

###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1. 2026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04.13(월) ~ 04.30(목)	2026.06.01(월) ~ 06.18(목)
고사장 발표	2026.05.06(수) 15:00	2026.06.24(수) 15:00
면접전형	2026.05.09(토) 10:00 예정	2026.06.27(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05.22(금) 15:00	2026.07.10(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05.26(화) ~ 05.29(금)	2026.07.13(월) ~ 07.17(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착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공지)

####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수료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Certificate Program(Columbia Univ.), Exchange Program(Univ. of Hawaii at Manoa)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Oswego)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 (논문·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과과목

TEL. 02-2173-3521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리더십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1. 2026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 4. 6(월) ~ 4. 24(금)	2026. 6. 11(월) ~ 6. 17(수)
고사장 발표	2026. 5. 6(수) 15:00	2026. 6. 24(수) 15:00
면접전형	2026. 5. 9(토) 10:00 예정	2026. 6. 27(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 5. 22(금) 15:00	2026. 7. 10(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 5. 26(화) ~ 5.29(금)	2026. 7. 13(월) ~ 7. 17(금)

####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군사 안보 전문 분야에: 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보유한 자

####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Uwayapply)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착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연정 고사장 및 시간은 추후 공지)

####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공로 장학금/학비감면

장학금/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입학전 전영규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내 학과 간 교차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글로벌공리더십대학원) TEL. 02-2173-2428 FAX. 02-2173-33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 ESG 선언 이후 2년, 우리대학 지속가능경영의 현주소

우리대학은 지난 2024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ESG 경영을 공식 선언하고 지난 4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당초 우리대학은 2050 넷제로(Net Zero)\*와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으나 △외부 검증 체계△정량 목표△중간 로드맵 등 구체적인 실행 구조는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우리대학 ESG 경영이 단순

선언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본 기사를 통해 △우리대학 ESG 경영의 현황△우리대학 ESG 경영의 문제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우리대학 ESG 경영의 현황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대학에서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대학 또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ESG 경영을 선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ESG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언문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의결과정△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발전 방향의 투명한 윤리적인 경영△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핵심 목표로 세웠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25'를 발간해 지난 1년간의 ESG 경영의 △과정△목표△성과에 대해 발표하며 사회적 책임을 공식화하고 대내외에 알렸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세 영역에서 모두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우선 환경(E) 부문에선 캠퍼스 운영 정상화에 따라 지난 2024년에 12,561tCO<sub>2</sub>e이던 Scope 1\*\*과 Scope 2\*\*\* 배출량이 지난해 13,275tCO<sub>2</sub>e으로 늘었다. 동시에 넷제로의 첫 관문인 Scope 3\*\*\*\* 배출량 집계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던 점도 과제로 남았다. Scope 3은 측정 범위가 넓고 산정 과정이 복잡해 국내 기업 또한 공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로 알려져 이제 막 ESG를 선언한 대학의 입장에서 당장 완전한 수준의 집계를 수행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Scope 3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재하던 점은 ESG 경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대학 보고서에서는 Scope 3에 대해 'TF 구성 및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확대 시급'이라고만 명시돼 있다. 이를 볼 때 대학적인 준비 계획은 제시됐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론은 여전히 미지수임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S) 영역의 경우 △2025 ESG 경영 학술제△양 캠퍼스 인권센터 운영△장애학생 수업료 30~50% 장학금 8학기 지원△RISE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등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한 성과 자체는 적지 않다. 다만 해당 활동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목표와 성과 지표가 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았다. 예컨대 우리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의 경우 지원 제도의 존재는 명시돼 있으나 △수혜 인원△예산 규모 △전년 대비 개선 수치 등 객관적으로 제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시되지 않았다.

지배구조(G) 영역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보고서는 '중대성 평가\*\*\*\*\* 과정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중대성 평가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았는지와 그 결과가 어떤 정책 결정으로 이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선언 당시의 약속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성과나 진척 기준이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ESG 경영의 이행 과정과 책임 구

조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대학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는 국제 표준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GRI\*\*\*\*\*△SASB\*\*\*\*\*△TCFD\*\*\*\*\* 등 국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공식 공시 기준으로 채택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없다. 김민석(중국·중국어 07) 책 '일하는 사람을 위한 ESG적 생각' 저자(이하 김 저자)는 "국제 공시 기준은 대학 ESG 활동을 단순한 사회 공헌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맞춘 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하는 공통 언어의 역할을 한다"라며 "특히 최근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도 ESG 관련 지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시 기준은 대학의 글로벌 평판과 국제 협력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한다"라고 전했다.

## ◆우리대학 ESG 경영의 문제 원인

우리대학 ESG 경영이 이와 같은 문제를 직면한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먼저 정량 목표와 중간 로드맵의 부재를 살펴봐야 한다. 선언문에서는 '2050 넷제로'를 명시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 지난해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중간 이정표가 없다. △구성원 성평등△장애 학생 지원 예산△재정에너지 전환율 등 여타 지표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있으며 단계적 목표가 없을 경우 달성 여부를 평가할 기준도 없어져 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경영진 중심의 구조가 빚어내는 견제 기능의 취약성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우리대학의 ESG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우리대학 총장과 부총장이 맡고 있으며 △교육연구△사회△지배구조△환경으로 이뤄진 4개 분과의 위원장 모두 우리대학 교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규정상 위원회가 내부 구성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우리대학 선언문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라고 직접 언급된 만큼 수렴 과정이 공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외대학보의 취재 결과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는 △시민사회 위원△외부 전문가 △학생 대표가 ESG 정책 의사결정 구조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대학 ESG 위원회의 조직도 및 보고서에는 자문위원회가 존재하나 해당 자문위원회의 △구성△역할△참여 방식에 대해선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자문위원회와 그 외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이와 관련해 평가감사팀은 "학생 참여 채널은 전담 조직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향후 관련 체계가 확충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학생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ESG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현재 조직 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신뢰성 문제로 이어진다. 평가감사팀은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대학의 ESG 관련 활동은 ESG 홈페이지 운영을 중심으로 외부 평가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제3자와 같은 전문 인력을 포함한 독립적인 ESG 전담 부서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엔 '평가감사팀의 감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며 외부 전문 기관의 회계 감사를 정기적으로 수감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는 재무 및 회계 감사에 한정돼 ESG 공시 내용 자체에 대한 독립적 외부 검증과는 구분된다. 이에 대해 김 저자는 "일반 재무 감사가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ESG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은 비재무 데이터의 신뢰성과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이다"라며 "ESG 검증은 단순한 회계 감사보다 범위가 넓고 성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데이터의 산정 방식과 관리 체계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제3자 검증은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제3자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대학이 선언한 비전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는지 위해선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정량 목표와 연도별 로드맵의 공식화가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례로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는 지난 2022년 '2045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목표 연도를 법정 기한보다 5년 앞당기고 △물 사용량 6% 감축△쓰레기 배출량 6% 감축△지속가능 교통수단 이용률 88% 달성 등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 실행 지표를 수립해 환경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21년부터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근거해 배출량을 측정하고 환경부 장관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탄소 배출량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장학금 수혜율을 수치로 명시하고 분석해 증가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이처럼 우리대학도 기존의 '2050 넷제로' 선언에 오는 2030년과 2035년 단계별 감축 목표와 수단을 병기한 공식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도별 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해 봄 직하다.

이와 더불어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투명한 거버넌스의 한 형태란 점에서 우리대학도 에너지 및 탄소 데이터의 단위별 공개와 학생 또는 외부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우리대학 ESG 동아리 흡세이버스(HUFsavers)는 "학생들이 ESG 위원회나 관련 부서와 연결될 수 있는 자문 채널을 통해 △사회 공헌 사업△친환경 캠퍼스 운영△

캠퍼스 실태조사△ESG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가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정기적인 창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표준 프레임워크와의 공식 연계를 통해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GRI를 최소 기준으로 명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각 목표와 대학 활동을 연결한 대조표를 국영문 통합 형태로 공개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대가 지난 2022년 ESG위원회 출범 이후 약 6개월의 활동 끝에 국내 대학 최초로 발간한 ESG 보고서는 GRI 스탠다드 2021에 부합하는 보고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대학 부문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중대성 평가 절차△지표 선정 기준이 자동으로 구조화됐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과제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ESG 보고서에 정량 목표가 있어야 외부 검증이 의미를 가진다. 또한 국제 표준을 적용해야 이해관계자 참여가 구조화되며 거버넌스가 개방돼야 로드맵이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본교가 70주년에 내건 ESG 경영의 약속이 구호로만 머물지 않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선언이 아니라 기존 선언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량(-)으로 상쇄하여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상태.

\*\*Scope 1: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Scope 2: 외부에서 구매한 △스팀△열△전기 등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Scope 3: Scope 1, 2를 제외한 기업 가치사슬 전체에서 발생하는 △공급망△출장△폐기물 등 간접 배출을 포괄.

\*\*\*\*\*중대성 평가: 기업 또는 기관이 ESG 보고 시 이해관계자와 사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제를 선별하는 과정.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업이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ESG 정보 공개 국제 표준.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업이 투자자에게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산업별 공시 기준을 제공하는 글로벌 표준 기구.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돕는 공시 프레임워크.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iViva México!

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우리대학교 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멕시코 몬테레이공과대학교(Tecnológico de Monterrey) 멕시코 시티 캠퍼스에서 수학했다. 다들 내게 왜 스페인을 두고 멕시코로 교환을 다녀왔냐고 묻곤 한다. 처음엔 당연히 스페인으로 갈 생각이었다. 중남미 국가는 위험할 것이라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해있었기에 처음엔 선택지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교환학생 지원서를 작성할 시기가 되자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교환학생을 다녀온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인끼리 어울려 다녔던 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하며 내게 한국인이 많이 없는 남미로 가라고들 조언해 주

니 약의가 아니라 정말 몰라서 던진 질문이었고 내가 한국인이라고 설명해주면 좋아하며 사진을 찍자고 했다. 특히 와하카(Oaxaca)의 몬테알반(Monte Albán) 유적지를 보러 갔을 때 한 현지인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요청해 찍어주고 뒤를 돌아보니 나와 사진을 찍기 위해 1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한국인과 사진을 찍는 것을 생일 소원으로 빌 정도로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생활하는 내내 연예인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들의 순수한 동경을 피부로 느낀 순간이었다. 그러나 멕시코에 있는 동안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낯선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부터

그래서 값비싼 물건을 시킨 날엔 기사가 올 때까지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멕시코에 있는 동안 페소(Peso) 환율이 73원에서 85원으로 급등해 월세가 순식간에 10만 원이 넘게 뛰기도 했고 멕시코 물가 자체가 미국과 다를 바 없었기에 경제적인 지출이 생각보다 컸다. 멕시코에서의 경험은 나를 여러 방면에서 성장시켜 줬다. 우리나라에선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친해지며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힌 소중한 기억이 됐다. 또 해외 생활에 대한



했다. 고민 끝에 지원 마감일에 스페인에 맞춰 썼던 지원서 대신 멕시코로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내가 수학한 학교엔 독특한 학제가 있었다. 바로 5주 수업과 1주 방학이 한 사이클로 총 3사이클로 한 학기가 구성되는 TEC WEEK다. 난 일주일의 방학을 활용해 멕시코뿐 아니라 다른 국가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멕시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현지인들의 관심이었다. 중남미 국가엔 동양인이 거의 없고 특히 한국인은 더 희귀하다 보니 어딜 가나 시선이 집중됐다. 처음엔 내게 중국인이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 인종차별로 오해하고 이로 인해 기분이 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알고 보

가 도전이었다. 치안과 통학을 모두 고려해 3주 간 집을 구하려 다녔지만 어렵게 구한 집에서의 일상도 우리나라와는 많이 달랐다. 특히 택배 시스템이 그랬는데 집 앞에 택배가 있으면 도난 당하는 것이 일상인 곳이었다.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와 더불어 내가 해외 생활에 잘 맞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해줬다. 만일 멕시코에서의 생활을 망설이는 학우가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토록 매력적인 나라를 놓치지 말고 주저 없이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읽어서 세계속으로

포르투갈

<눈먼 자들의 도시>

- 우리는 정말 보고 살고 있는가 -



우린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켜다. △뉴스△유튜브△SNS를 보며 수많은 정보를 접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정작 무엇을 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알고리즘에 따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자신과 다른 의견은 외면한다. 어쩌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점차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제 사라마구(José Saramago)의 <눈먼 자들의 도시>는 한 남자가 운전 중 갑자기 시력을 잃으면서 시작된다. 특이한 점은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하얗게 보인다는 것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백색 실명은 전염병처럼 도시 전체로 퍼지고 정부는 감염자들을 폐쇄된 정신병원에 격리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인간 사회를 지탱하던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식량을 차지하기 위한 폭력과 착취가 벌어지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다. 그 와중에도 유일하게 시력을 잃지 않은 의사의 아내는 끝까지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 소설이 특별한 이유는 실명을 단순한 질병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사라마구는 일반적인 '검은 실명'이 아닌 '백색 실명'을 통해 실명이라는 현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눈이 멀면 어둠을 떠올리지만 작품 속 인물들은 오히려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인다고 말한다. 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빛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 역시 그렇다.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게시물△기사△영상을 소비한다. 누군가의 고통은 잠깐의 뉴스거리가 되고 사회 문제는 몇 번의 클릭으로 소비된 뒤 잊힌다. 보고는 있지만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작품 속 인물들이 실명하자마자 곧바로 인간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들의 내면에 숨어 있던 욕망과 이기심이 점차 드러난 것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쉽게 타인을 착취하고 폭력을 정당화한다. 그렇다고 작품이 인간에 대한 절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의 아내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눈이 돼 준다.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며 사람들을 돌본다. 사라마구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연대와 희생이 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이야기한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은 기적처럼 시력을 되찾는다. 그러나 의사의 아내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볼 수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 말이에요"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책을 덮고 난 뒤에도 이 문장은 오래 남는다. 우리는 정말 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넘쳐나는 정보와 욕망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외면한 채 살고 있는가. <눈먼 자들의 도시>는 단순히 실명에 관한 소설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에 가깝다.

정일성 기자 12ilseong@hufs.ac.kr

장휘영(통번역 · 스페인어 23)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6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Table with 4 columns: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Rows include application, document submission, interview, and enrollment dates.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비즈니스 · 엔터테인먼트 - 오프라인 과정
나. 디지털미디어융합전공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6. 전형장소 : 화상면접(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Table with 3 columns: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Rows include application, document submission, interview, and enrollment dates.

◆ 모집 전공

Table with 2 columns: 모집 과정, 지원 전공. Rows list various education fields like Korean, English, and special education.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기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리케이션 Uwayapply.com)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통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입학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메일 : hufgse@hufs.ac.kr



# 대학 5학년의 시대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선 대학 5학년이라 불리는 졸업유예 혹은 추가학기생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외활동 참여△부전공 또는 이중전공 이수△인턴십△졸업 학점 충족△취업 준비 등 다양한 이유로 졸업을 미루거나 학교에 더 머무르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부 학생들의 선택을 넘어 대학이 전반에서

확산하며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사회적 관점에서 △대학 5학년의 통계 현황△대학 5학년 급증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 ◆대학 5학년의 통계 현황

추가학기란 8학기 내에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정규학기를 초과해 등록하는 학기를 의미한다. 졸업유예는 추가 학기를 신청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자 교육부가 지난 2017년에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된 제도로 졸업 요건을 모두 채우더라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 추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졸업유예생의 수는 2만 769명으로 1만 7,597명이었던 전년 대비 3,000명가량 증가했다. 또한 대전일보에 따르면 충남대학교의 지난해 졸업유예 제도 신청자 수는 325명으로 242명이었던 전년 대비 32.1% 증가했으며 연도별 졸업유예자 수는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중앙대학교는 3년 연속 졸업 유예생이 증가해 지난해 835명이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했으며 한밭대학교 역시 지난해 177명의 학생이 졸업을 유예해 전년 대비 13.5%가 증가했다.

이렇듯 국내 대학들의 5학년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대학 역시 졸업유예와 추가학기를 선택하는 학생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중전공과 부전공 이수 비율이 높고 해외 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활발한 우리대학 특성상 졸업 시기를 조정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우리대학의 추가학기생은 지난 2022년 781명에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이번 해 919명으로 17.7% 증가했다. 졸업 대기 생 역시 지난 2022년 2,566명에서 이번 해 2,792명으로 8.8% 증가했다. 이는 졸업유예와 추가학기로 발생하는 대학 5학년의 증가 현상이 단순히 일부 학생들의 늦은 졸업 문제로 바라보기 어려우며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 ◆대학 5학년 급증의 원인

최근 대학 5학년의 학생 수가 급증한 원인은 사회적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의 청년

사회와 경제 실태 조사 중 졸업유예 이유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졸업유예 이유는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42.5%)였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원인은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24.5%)였으며 이어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16%)와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11%)가 뒤를 이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유예의 이유를 취업과 진로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얼어붙은 취업 시장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 사회 초년생의 취업이 졸업유예와 추가학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지난 2021년 10.1개월에서 지난해 11.3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공개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신입사원보다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직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업 준비를 위해 관련 공고를 확인했을 때 유사 경력 우대 혹은 지원 자격이 사회 초년생이 넘기 힘든 경우가 많다"라며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 조건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더더욱 신입이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은 졸업 이후 곧바로 사회에 진입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은 졸업 이후 공백기를 감수하기보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취업 준비를 이어가기 위해 졸업유예와 추가학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펙 인플레이션 역시 대학 5학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대학 익명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선 '추가학기 고민 됩니다'는 제목으로 학점 때문에 추가학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취업 시장에선 △공모전△공무원 시험△대외활동 수상 경력△어학 성적△인턴 경험△자격증△전문직 시험△코딩 및 실무 역량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이에 졸업장과 학점 외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학생들은 교내 활동을 넘어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학기 안에 이를 모두 준비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졸업유예나 추가학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보편화된 이중전공과 부전공이 추가학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청년층의 진로 불확실성 증가 역시 본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직무의 등장△대학 전공의 다변화△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로 인해 전공과 무관한 직무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대학생들의 진로 고민 또한 길어지며 대학에서 전공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대학 재학생 B 씨는 "대학생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마련돼있으며 전공과 맞지 않더라도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좋은 가치라는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라며 "주변 학생들을 봐도 휴학이나 교환학생 등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즉 오늘날의 졸업유예와 추가학기는 단순히 취업난의 결과만이 아니라 충분한 탐색과 경험을 거쳐 진로를 결정하려는 청년 세대의 변화한 대학 생활 방식이 반영된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이처럼 대학 5학년의 증가는 사회 초년생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다양한 진로 경험에 대한 요구가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 준비 과정이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저학년부터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학생 중심의 진로 교육과 다양한 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 과정△실무 과목 확대△융합적인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 독일은 대학 교육과 사회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독일의 듀얼 스튜디오(Duales Studium)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과 기업 현장을 병행하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학생들이 재학

중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으며 진로를 고민하며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직업 훈련△AI 교육과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취업 도전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청년 보장제(Youth Guarantee)' 정책을 통해 청년이 실업 상태에 놓일 경우 4개월 이내에 △도제훈련△인턴십△직업교육△취업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의 실업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정부가 책임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일자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 교육만으로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힘들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고 산업 불균형을 해소해 일자리를 균형적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5년 청소년고용촉진법을 제정해 청년응원 인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청년 채용에 적극적이며 청년 이직률이 20% 이하일 때 사업장을 청년응원 기업으로 선정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대학 5학년 증가 현상은 취업난 속 경쟁 심화와 변화한 다양해진 대학 진로 속에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이 졸업을 미루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1. 2026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04.03(금) ~ 04.17(금)	2026.05.29(금) ~ 06.12(금)
고사장 발표	05.06(수) 15:00	06.24(수) 15:00
면접전형	05.09(토) 10:00 예정	06.27(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21(목) 14:00	07.02(목) 14:00
등록예치금 납부	05.26(화) ~ 05.29(금)	07.06(월) ~ 07.10(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학과

###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 5. 제출서류(지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정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국내 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서 제출 필요

###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중·고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가산점 부여)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 8. 특전

-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 나. 3가지 졸업 트랙 운영
  - \* 논문(24학점 이상), 연구보고서(28학점 이상), 추가학점(32학점 이상)
- 다. 장학금 : 성적우수/우수외국인/논문/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가능(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982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선거철 공직 후보자들의 현수막 규정 위반, 이대로 관참은가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치러졌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현재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및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거철을 맞아 평소보다 불법 설치 현수막이 증가하면서 사고 우려와 함께 현수막의 난립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수막 난립 현황△현수막 난립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현수막 난립 현황

선거 기간 동안 불법 정당 현수막이 여전히 거리를 뒤덮으면서 도시미관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집계 따르면 전국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2022년 28만 7,255건에서 2023년 80만 2,304건으로 1년 만에 약 28배 증가했다. 이러한 정당 현수막이 폭증하게 된 배경으로는 옥외광고물법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추첨 후 지정된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한해 기존 현수막과 달리 신고·허가 및 제한·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한 정당 현수막은 △게시 기간△게시자 연락처 △정당명 표시 조건만 갖출다면 지자체 신고 및 지정 게시대 없이도 내걸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당 현수막에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당의 특권인 현수막 무제한 사용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개정 이후 게시 기간만 변경해 같은 곳에서 무분별하게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특히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정당 구호를 쓴 현수막을 유동 인구가 많아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설치해 두었다가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후보자 현수막으로 갈아 끼우는 이른바 '명단 알박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외대학보가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취재한 결과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남부오거리에 선거 전후로 현수막 자리를 알박기하거나 높이 제한을 어긴 채 설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을 다시 개정해 정당 현수막 설치 수량을 △읍면동△동별 2개 이내로 제한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특별시만 단속한 불법 현수막 5,810개 가운데 정당 현수막은 992개로 상업용 현수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일반 상업용 현수막처럼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정당이 소수정당의 정치적 표현 기회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수막 난립의 모습

## ◆현수막 난립 문제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안전사고 문제였다. 현행 규정상 현수막은 2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낮은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5일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초등학생이 현수막으로 인해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은 약 1m 높이에 설치된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리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두개골 골절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조정보혁신과 관계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널목 인근 낮은 위치에 걸린 현수막 때문에 운전자들이 뛰어들어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설치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수막을 내거는 일도 빈번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현수막에 가려 신호등을 못 보거나 현수막 끈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그러나 행안부의 집계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게시가 금지된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38.1% 증가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현수막의 혐오 및 비방성 표현이 제기된다. 충청타임즈에 따르면 정주 시내 곳곳에 타 정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맹목적 비방이 가득한 문구의 현수막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 정책이나 민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비방과 비난으로 채워진 현수막 공해가 지역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 섞인 반응들도 나왔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B 씨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보가 될 하겠



▲저단형 게시대 ©동해시

다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방 현수막만 보니 그냥 안 뽑는 게 답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C 씨 역시 같은 인터뷰에서 "서로 공격하는 내용만 보이니까 정치 자체에 질리게 된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현수막의 원료인 플라스틱 합성수지는 자연분해가 어려워 대부분 소각 과정을 통해 폐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포함한 유해 물질들이 배출된다. 재활용 처리 방법도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1톤당 30여만 원이 드는 소각처리에 비해 재활용 비용은 최대 90여만 원에 달해 실제로 재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중앙선거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현수막 재활용률은 24.8%였으며 2021년 재보궐선거 역시 23.5%로 비교적 낮은 수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재묵 우리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환경 낭비나 소음 공해가 없는 다양한 방식의 선거 운동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나아가야 할 방향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단속과 예방이 필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불법 현수막을 얼마나 많이 철거했느냐'가 아니라 '사고 발생이 높은 현수막을 사전에 얼마나 빨리 찾아 수거하느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수막 수거 보상금제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용인특례시에서는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매년 모집해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수거단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시에서는 가로형과 족자형 각각 장당 3,000원과 1,500원을 보상해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위험도에 따라 금액 차이를 두어 △교차로 시야 방해구역△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

도에서 수거된 현수막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 D 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운영한 결과 불법현수막 정비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며 "이번 해도 이 제도를 운영해 시민 참여 기반의 도시환경 정비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정 게시대 확대와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지난 2024년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을 통해 지정 게시대 78기 162면을 설치했다. 지난 4월에는 6기 12면을 추가로 설치함과 더불어 단속 및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번만 아니라 거제시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최초로 도입해 정당용과 행정용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저단형 게시대의 경우 높이가 성인 다리 정도로 낮아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방해 줄이고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당 현수막의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역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방지법을 통해 국외 출신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될 때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영국△프랑스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 역시 인종 차별과 같은 혐오 표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전자게시대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수막 규격과 설치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디지털 홍보 등 다른 수단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전자게시대 도입은 현수막 폐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밝기 및 가시성 등 환경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빗공해로 인한 환경 문제 역시 현수막보다 적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전자게시대 12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계룡시△구리시△인제군△장성군△전주시△춘천시△충주시에서도 전자게시대를 도입하거나 계획 중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의무이다. 선거철을 맞아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잡음이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건전한 현수막 게시를 위한 대책들이 종이호랑이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하은 기자 11haeun@hufs.ac.kr

# www.사사한줄토막.com

## 정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민주당 12곳 · 국민의힘 4곳 승리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우세를 보였다. 개표 결과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승리했으며 국민의힘은 4곳에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전국 단위 평가 성격을 띠며 6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경기도와 충청권 등 다수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접전 끝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며 수도 사

수에 성공했다. 동대문구청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 최동민 후보가 현직 이필형 구청장을 꺾고 약 5% 차로 승리를 거뒀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서울 내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은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체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사회 티빙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름 · 생년월일 등 외부 유출 정황

국내 OTT 플랫폼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티빙은 지난 3일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생년월일△성별△아이디△연계 정보(CI)△이름△이메일 정보 일부△전화번호 일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빙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공격자 IP 접근 차단△클라우드 접근 권한 수정△DB 접속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후 조치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티빙의 신고 직후 티빙 측에 관련 자료 보존을 요구하고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고가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기정통부△포렌식 및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민간 전문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을 결정했다.

## 경제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재차 시사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이하 신 총재)가 최근 공개 석상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연이어 언급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총재는 지난 1일 열린 '2026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조정의 장애물이 적다"라고 밝히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신 총재는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에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날 공개된 금

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의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에서 전체 21개 점 중 19개가 '인상'으로 쏠렸다는 점에서 금융위 내부 여론도 이미 긴축으로 기울어졌다는 평가다. 시장에선 이번 해 내에 최소 2회에서 3회까지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 국제 미국, '강제노동' 60개국에 10~12.5% 추가 관세 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불균형을 더는 용인하지 않

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해 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 불합리△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세 부과나 기타 수입 제한 조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노후 시설의 안전관리 과제는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66년 개통된 서소문 고가차도는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철거가 진행 중이던 노후 고가차도였다. 이번 사고로 인해 6명의 사상자와 교통 혼란이 발생했으며 노후 시설 해체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와 공공 발주 공사의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

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체 공사는 기존 구조물의 하중 균형을 변화시키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일반 시공과는 다른 위험성을 가진다. 이에 대해 정제평 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정제평** 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Q1.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일어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번 사고의 배경에는 △감리 부실△공법 선정 문제 △안전조치 미흡△전문 인력 부족△철거 계획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가차도 철거는 △감리사△발주처△시공사△하도급업체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조건을 충분히 반영한 철거 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감리△구조 안전 검토△안전조치△적정 선의 비용소요가 단계별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법을 선택하거나 안전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아니라 미숙한 인력이 배치될 경우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도 비용 절감 중심의 발주 관행과 현장 안전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Q2. 고가차도나 교량과 같은 구조물은 일반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해체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성이 두드러지나요?

고가차도와 교량은 일반 건축물보다 하부 공간의 위험성이 훨씬 큼니다. 일반 건축물이나 공터에 있는 구조물은 낙하물 관리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고가차도나 교량은 그 아래로 △보행자△열차△차량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작은 파편 하나만 떨어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소문 고가차도는 하부에 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절단 과정에서 낙하물 방지△분진 방지△파편 방지△2차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 컸습니다.

## Q2-1. 일반 고가차도와 노후 고가차도 철거 방식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노후 구조물의 경우 △기존 도면과 실제 상태의 불일치△내부 철근 부식△콘크리트 열화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일반 구조물보다 △구조 검토△변위 계측△△임시 보강△전도 방지△스크레인 지지 등이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절단 과정에서 주형\*\*이 기울어져 약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단 전 보강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 Q3. 사고 전 구조물 일부에서 침하 등 이상 징후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징후가 나타났을 때 현장에서는 어떠한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은 계속 관리입니다. 절단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각 슬래브(Slab)\*\*\*가 얼마나 내려앉는지 또는 수직 변위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현장에는 변위계나 센서를 설치해 구조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절단이 진행될수록 변위가 점차 증가한다면 이는 붕괴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면 사람이 직접 위험 구간에 들어가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드론이나 협소 공간 점검 장비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붕괴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의 내



▲출처: 노컷뉴스

부나 하부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 Q4. 이번 사고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인프라 철거 및 관리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인프라 철거 체계를 더 엄격하게 재검토할 가능성이 큼니다. 특히 △감리 책임△구조 안전 검토△전문 인력 배치 △철거 계획서 검토△현장 점검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철거 계획서가 제출됐을 때는 토목구조기술사와 같은 구조 전문가가 사전에 위험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회사 내부에서도 상주 감리뿐만 아니라 비상주 구조 분야 기술자가 계획서를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검토가 아니라 실제 구조물의 붕괴 가능성과 공법의 안전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자체나 발주기관의 현장 점검단의 실질적인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Q5. 도심 고가차도 철거는 구조물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체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른 교통 수요 분산과 우회 체계는 어떻게 설계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도심 고가차도 철거는 구조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교통 분산 대책은 해당 지역의 △도로망△대중교통△철도 체계와 연계해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철거 과정에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증편△신호 체계 조

반응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작업자는 추정치에 의존해 절단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예상하지 못한 내부 결함이 있을 경우 붕괴 위험이 커 집니다. 따라서 노후 인프라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 등급 평가를 넘어 구조물의 △내부 상태△도면△보수 기록△이력을 포함한 정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 Q7.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는 △감리△발주처△시공사△하청업체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한 공공 공사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구조에서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책임은 어떻게 나뉘며 책임 공백을 막기 위해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층적 공공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사고가 △감리 부실△발주처의 무리한 요구△시공 과정의 안전조치 미흡△철거 설계 부실△하청업체의 작업 관리 문제 중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단계별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책임소재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철거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면 설계나 계획 수립 주체의 책임이 큼니다. 계획은 적절했지만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면 시공사나 하청업체의 책임이 커집니다. 감리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면 감리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발주처가 지나치게 낮은 비용이나 짧은 공기를 요구했다면 발주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감리의 실질 검토△독립적 현장 점검△발주처의 적정 공사비 보장△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모두 작동해야 합니다. 또한 부실이 확인될 경우 △부실 벌점△비용 환수△제재 조치 등도 이뤄져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이미 어느 정도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저가 낙찰과 비용 절감 관행으로 인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변위 계측: 구조물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측정하는 것.  
\*\*주형: 교량이나 고가차도 바닥판을 밑에서 받쳐주는 큰 보.  
\*\*\*슬래브(Slab): 고가차도나 교량에서 차가 지나가는 넓고 평평한 콘크리트 판 부분.

정△우회도로 확보 등 교통 수요 분산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빠른 철거만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사비와 시간을 투입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Q6.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기반 시설 관리 방식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 시설 관리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취약한 부분은 노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부족입니다. 오래된 교량이나 고가차도는 과거 청사진이나 수기 도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구조물 내부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전산화된 자료 역시 부족합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을 통해 등급은 매겨지지만 철거 단계에서 필요한 수준의 세부 정보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 계산서 △보수 이력△철근 부식 정도△철근 위치△콘크리트 내부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이 어떻게



## 이번 학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AI로 몇 초 만에 글이 뿜어 나오는 세상이다. 나의 글을 쓴다는 건 꽤나 정성을 요하는 일이 됐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내게 글쓰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내게 글쓰기는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으며 동시에 절망을 주는 대상이기도 했다. 어릴 적엔 글쓰기 이전 글씨를 적는 걸 좋아했다. 그림을 그리듯 한 자 한 자 적는 내 이름 석 자를 보며 나라는 개체의 유일성을 실감했다. 항상 내 머릿속은 생각으로 꽉 차 있었고 꺼내고 싶은 말도 많았으므로 이를 글로 풀어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얀색 연습장을 까맣게 채워가며 세상에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글을 쓰는 것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타인이 내 글을 읽는다는 건 내 속내를 들킨다는 기분이 들게 했고 여러 수행평가와 과제 속에 자잘히 평가된 나의 글을 보며 울적하기도 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바쁜 전공 공부와 여러 활동으로 어느새 글과 멀어지고 있었다. 젊은이들의 독서량이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 순간 내 이야기가 됐고 당장의 과제 수행을 위해 적어 내려간 글들만이 남았다. 바쁜 진로와 함께 점점 글과 멀어지던 중 다시 글을 쓰고 싶어 외대학보에 지원하게 됐다. 학보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쓰는 곳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한 편의 기사를 완성 해낸다. 책임을 요하는 글을 써본 것은 처음이라 때론 중압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하나하나씩 발행된 기사를 만날 때면 내 마음속에도 뿌듯함이 쌓여갔다. △1112호의 축소된 FLEX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FLEX 센터와 학생종합지원처에 전화를 드렸던 일△1114호의 인상된 등록금 취재를 위해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던 일△1115호의 총학생회 인터뷰를 위해 공청회에서 질문을 했던 순간들은 속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자가 됐음을 실감하게 했다.

서서히 외대학보의 기자로서의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 이번 학기의 마지막 발행인 1117호의 마감에 앞두고 있다. 추위와 함께 잠을 청했던 학보사실의 공기도 어느새 후텁지근하게 바뀌었다. 학보 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보내고 싶다는 나의 말처럼 어느새 학보사실은 지친 통학생인 나에게 머무를 장소가 됐다. △비슷한 고민을 나누며 친해진 112기 동료 기자들△유쾌한 111기 선배 기자들△글의 완성도를 높여주시는 부장단△언제나 든든한 편집장님과 함께한 왓지지껄했던 마감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돼가는 중이다. 글쓰기라는 나의 오랜 친구와 다시 만나게 해주어서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준 외대학보에 감사를 표한다.



이나연 기자

###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 [책 '비극의 탄생'을 읽고] 비극의 의미를 탐색하다

처음 비극을 접했던 순간이 기억난다. 어릴 적 '아기 사슴 밤비'를 읽고 느꼈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는 공식을 깨준 영화 '스타워즈: 로그 원' 역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남아 있다. 이런 나의 취향은 커서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다룬 비극이 자주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가 니체는 고대 그리스로 회귀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다.

니체는 고대 그리스인들을 염세주의자로 설명한다. 이들은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삶을 열망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술은 이러한 인간을 염세주의로부터 구원하고 삶을 긍정으로 이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극은 단순한 슬픔의 재현이 아니라 인간 삶의 승화다. 이들의 비극에 대한 열망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드러난다. 디오니소스 축제는 술과 황홀경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자신을 잊는 도취를 경험한다. 이러한 디오니소스적 예술은 인간을 개별적 존재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삶의 근원적인 힘과 마주하게 만든다. 비극은 바로 이러한 생명력과 창조성을 예술의 형태로 드러내는 장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비극으로 이끌까? 관객은 주인공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파멸하는 과정을 지켜본다. 니체에 따르면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개별 존재는 사라질 수 있지만 삶 자체의 근원적인 생명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관객

은 비극을 통해 파멸 속에서도 생명은 계속되고 창조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또한 비극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넘어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든다. 우리는 주인공의 고통을 통해 삶의 다양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더 넓은 차원의 존재를 마주하게 된다. 비극은 인간을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삶으로 이끌며 궁극적으로 세계를 긍정하게 만든다. 이처럼 비극은 인간 삶 자체를 승화시키고 실존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예술이다. 니체의 예술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에게 예술은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예술은 단순한 장식이나 오락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은 예술을 통해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뿐 아니라 삶의 완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관객은 예술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마저 변화시키고 발전시킨다.

이번 학기 마지막 책 칼럼을 작성하며 단순한 줄거리 소개를 넘어 작품을 바라보는 미학적 시선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니체의 비극론은 비극이 왜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한다. 어쩌면 우리가 비극을 사랑하는 이유는 슬픔 자체가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나연 기자 12naeyon@hufs.ac.kr

###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 [영화 '괴물'을 보고]

## 일상 속에 공존하고 있는 괴물에 대하여

영화 '괴물'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괴상한 형태를 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영화는 하나의 사건을 세 가지 시선에서 비추며 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관객은 사건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괴물의 정체를 의심하지만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그 판단이 얼마나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

첫 번째 시선은 아들 미나토(姜野濤)를 걱정하는 엄마 사오리(朱織)의 시선이다. 어느 날부터 달라진 아들 미나토의 행동을 보며 사오리는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 상처를 입고 돌아온 아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모습과 담임교사 호리(俣利)에 대한 미나토의 이야기는 엄마의 입장에서 학교가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며 호리가 아들을 괴롭히는 가해자라고 받아들여진다. 학교 측이 반복하는 형식적인 사과 역시 사오리의 의심은 더욱 키운다.

두 번째 시선은 교사 호리의 이야기이다. 사오리의 시선 속에서 무책임한 교사처럼 보였던 호리가 사실은 오해와 편견 속에 놓인 인물임이 드러난다. 그는 담당 학생 요리(依里)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를 막으려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체벌 교사라는 낙인을 뒤집어쓰게 된다. 학교는 호리네 반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호리는 학부모와 여론의 비난 속에서 점점 고립돼 생각이 극단으로 치닫기도 한다.

마지막은 영화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미나토의 시선이다. 영화를 감상하며 마음속으로 굳게 "아이들의 입장을 들어야 진실을 안다"라고 생각했고 우린 이 시점에서 비로소 미나토와 요리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어른들이 학교폭력과 문제 행동으로 해석했던 사건들 뒤엔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던 두 아이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나토의 시선은 앞선 두 시선이 놓치고 있던 진실을 드러내고 어른들의 편견과 오해가 아이들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마지막에 드러난 미나토와 요리의 이야기이다. 영화 내내 감춰져 있던 두 아이의 관계는 순수하면서도 아름답게 그려진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기 때문에 결국 가장 순수한 존재인 아이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그렇기에 두 아이가 함께하는 장면들은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나 먹먹한 상황이다.

영화에서 말하는 괴물은 특정 인물이 아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는 시선과 태도가 영화가 말하는 괴물에 가깝다. 영화를 보는 동안 관객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해하는 것을 반복하다 마침내 아이들의 시선을 통해 진실을 깨닫게 된다. 태풍이 지나간 뒤 함께 들판을 달리는 미나토와 요리의 모습은 깊은 여운을 남긴다. 괴물이 두려웠고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괴물이라 불릴 수밖에 없었던 미나토와 요리는 온갖 오해와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다. 부디 그 아이들만큼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게 되는 작품이다.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 1116호 학보를 읽고

## 한 해의 절반을 마주하며

이번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더위가 찾아오고 한 해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다. 외대학보 역시 어느덧 1학기 마지막 호수를 향해 달리고 있다. 1116호는 학내 문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다.

3면 준기획에선 출석만 확인한 뒤 강의실을 떠나는 이른바 '출석하고 튀기(이하 출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짚었다. 기사에서 언급됐듯 출튀 문화는 대학생들의 낭만과 청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반면 △교권 하락△면학 분위기 훼손△학습권 침해 등을 야기할 단점에서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기사 속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출튀로 인해 수업 분위기와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튀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보다 성숙한 대학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4면 기획에선 우리대학 디지털 플랫폼의 언어장벽 현실을 다뤘다. 기사에선 우리대학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핵심 디지털 플랫폼 대부분에서 외국어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외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 모든 학사 정보가 현지 언어로만 제공된다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대학이 외국어 교육을 대표하는 대학인 만큼 유학생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다국어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6면과 7면 특별심층에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한영빈(서양어·포르투갈어 24)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두고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와 동대문구청장 후보자 간담회 내용을 다뤘다. 기사에선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유권자들이 선거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우리대학을 비롯한 동대문구 3개 대학 총학생회가 후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전달하고 관련 공약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해당 기사들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8면에선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문자마 범죄에 대해 다뤘다.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지난 2023년 연이어 발생한 흥기 난동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동시에 무고한 시민들이 겁에 질린 채 일상생활을 해야 했던 기억이 난다. 기사에선 △문자마 범죄의 원인△문자마 범죄의 현주소△나아가야 할 방향을 차례로 짚으며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봤다. 문자마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이 같은 범죄로 인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다가올 여름을 맞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응원한다. 한 학기 동안 6개의 학보를 발행하며 독자들에게 다양한 학내의 소식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준 외대학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1116호 학보를 읽고

## 안팎의 목소리

학교를 뒤덮은 여름의 열기 못지않게 선거철 후보들의 선거 유세 또한 뜨거워졌다. 그러나 기말고사를 앞둔 이 시점에서 선거의 열기에 귀 기울이기는 쉽지 않다. 1116호는 그런 학우들을 위해 우리대학을 둘러싼 동대문구와 서울 후보자들의 목소리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3면에선 출튀 문화에 대해 다뤘다. 출튀가 개인의 자유란 의견과 엄연한 학습권 침해란 의견 모두 일리 있게 느껴졌다. 그러나 출튀라는 행위 자체가 명백히 수업 진행에 지장을 주는 만큼 적절한 제재나 대처 방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공정함에 대해선 분명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4면에선 우리대학 디지털 플랫폼의 언어장벽에 대해 다뤘다. 유학생의 비율이 높음에도 교내 플랫폼의 대다수가 한국어만을 지원한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해당 기사를 읽으며 유학생 학우에게 수업 공지를 확인하는 플랫폼과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숙지하지 못하고 내게 재차 질문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우리대학이 외국어 대학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6면에선 서울시장 후보들의 인터뷰를 다뤘다. 후보들은 부동산과 청년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하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공약의 목표는 대동

이유진(인문·사학 24)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소이하나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은 상이한 만큼 본 기사를 바탕으로 공약을 비교한다면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어 7면에선 동대문구청장 후보자 간담회를 다뤘다. 두 후보 모두 주거와 교통 개선에 대한 계획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후보자들이 소통을 강조한 만큼 이번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관심이 있다면 학우들이 겪는 불편함이 빠르고 명확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8면에선 사회적 문제인 '문자마' 범죄를 다뤘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원인이 비단 정신질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단절과도 관계가 있다는 시각이 인상적이었다. 문자마 범죄의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라는 점에서 사람을 조심하게 되는 요즘 더욱 단절되고 고립되는 사람이 생기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외면하기 쉬운 선거 소식과 학내의 여러 문제를 대학생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담아낸 게 1116호인 것 같다. 앞으로도 외대학보가 지금까지 학우들과 소통하고 귀 기울이는 보도를 지속해 줬으면 한다. 또한 외대학보를 읽는 우리도 힘과 편견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국·부장 고정칼럼

# 빈 의자를 바라보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을 참 싫어했다. 정이 많은 탓일까 삼마지막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의숙했던 환경들△특유의 공기와 느낌을 다시는 못 느낀다는 사실이 늘 참 아쉽고 머릿속엔 슬픔으로 가득 차는 순간들도 많았다. 그런 순간이 지금이다. 일 년간 12번의 밤을 새고 삼마감△조판△회의의 치열한 과정을 거치며 정들었던 외대학보를 떠나는 마지막의 순간 말이다. 학보사실의 오래된 의자에 앉아 정적이 잠긴 공간을 바라보고 있으니 밤새 활자와 씨름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이번 외대학보 1117호는 중강을 앞둔 학우들의 다양한 고민과 사회적 사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먼저 3면 준기획에선 잠시 학교를 떠나 있는 휴학생들이 겪는 소외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자의 목표를 위해 휴학을 선택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속감이 저하되거나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 학교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바란다.

이러진 4면 기획에선 최근 늘어나는 협업 활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서울캠퍼스 공유 학습 공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뤘다. 공모전이나 팀 프로젝트 등 학생 간의 학술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교내 학습 공간은 운영 시간과 편의성에서 아쉬움이 크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교외 카페를 찾으며 급진적인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만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향이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7면 심층에서는 졸업 유예나 추가 학기를 선택하며 이른바 '대학 5학년'을 자처하는 대학생들이 급증하는 현상을 다루었다. 단순히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대외활동과 이중전공 이수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더 머무르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선택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그에 맞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9면 학술에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통해 노후 인프라

라 관리의 취약점을 분석했다. 노후 시설물의 도면이나 내부 상태를 확인할 정밀 데이터베이스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여러 업체가 관여하는 다층적 공공 공사에서의 안전 책임 문제를 짚어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정밀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철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12면에선 스포츠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대학 김기남 선배님의 인터뷰를 담았다. IT 운영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 업무까지 스스로 영역을 확장하며 구조 전반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일화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활약하기 위해선 단지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확고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인터뷰 내용 역시 머지않아 사회로 나아가갈 내게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이었다.

학우들에게 학내외의 다채로운 소식과 깊이 있는 생각거리를 동시에 전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교열을 보던 기억은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을 것 같다. 때로는 마감 압박과 책임감에 짓눌리기도 했지만 늘 곁에서 묵묵히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함께 고생해 준 △부장단△차장기자들△1127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이라는 순간은 삶의 매 걸음마다 늘 찾아오기 마련이다. 후회 없이 아름답게 모두에게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마지막이기에 지금의 헤어짐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다. 또 앞으로 걸어나갈 길 위에서도 언제나 이처럼 아름다운 마지막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단단한 용기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남겨질 외대학보 사람들과 우리 외대학보의 앞날이 늘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해봄 기자 1haebom@hufs.ac.kr



# 13,128시간

“나에게 불안은 잘하고 싶단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의심이다.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한다. 특히 글을 쓸 때 그 불안은 더욱더 커진다.” 이 글은 내가 외대학보에서 처음으로 썼던 사실의 도입부다. 그 무렵 나는 불안을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정 기자로 첫발을 내디뎠고 어느덧 1년 6개월이 흘러 편집장의 자리까지 맡게 됐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외대학보를 통해 불안을 완벽히 극복했는가. 그렇지는 않다. 불안은 내게 놀랄 정도로 유연해서 매 시절 다른 형태로 나를 찾아왔다. 정 기자 시기에는 기사의 방향성이나 주제, 구조, 짜임새 등이 빈번히 내 발목을 잡았다. 부장기자 시기에는 흑여 잘못된 피드백을 하진 않았을까 주제 회의에서 내가 꺼낸 말이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진 않을까 자주 마음을 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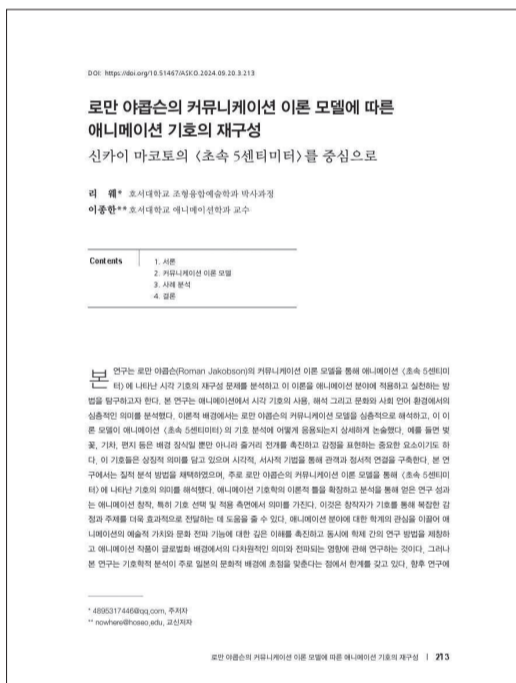
편집장 시기에는 모든 기자와 기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은 곧 불안으로 변저져 나를 짓눌렀다. 이와 더불어 교내 언론에 대한 관심이 점차 열여지는 요즘, 외대학보의 존재를 향한 외부의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 의문에 답하고 외대학보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기사를 써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기사가 쓰고 싶어 하는 주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끄는 주제를 앞세우곤 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기자들의 의견을 좀 더 경청했으면 하는 후회가 남는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변수 역시 불안을 한층 키웠다. 수순란 분디 예측할 수 없기에 미리 대비할 도리가 없었고 그저 매 호 맞닥뜨릴 때마다 직접 부딪쳐 판단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호까지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주제든 늘 열심히 기사를 써준 기자들, 외대학보의 옳은 방향성을 위해 항상 고민해주신 주간 교수님, 매 호 열심히 피드백을 해주신 조교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보를 든든히 받쳐주신 행정실 선생님과 조판소 사장님△소원님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함께 진심을 다해 기사를 만들어 나가고 서로를 존중했던 자세는 한 학기 동안의 발행을 가능하게 한 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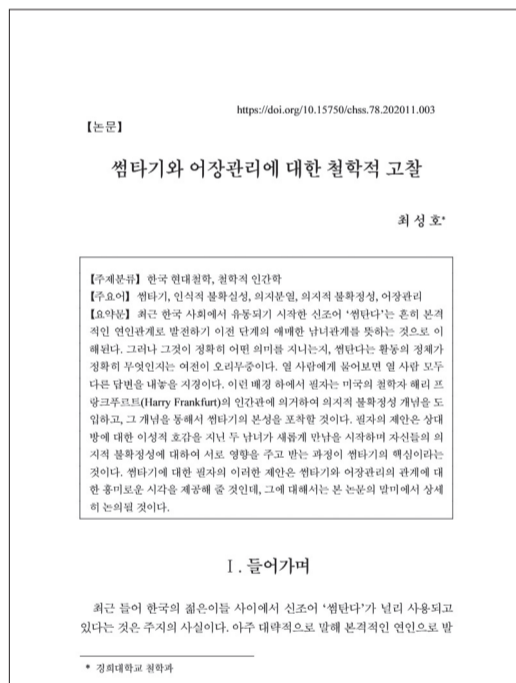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한 사안들, 더 정교하게 다듬지 못한 문장들, 차마 헤아리지 못한 기자들의 고민은 마지막 호를 마추한 지금까지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내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이자 한층 더 성장했다는 방증이라 믿는다.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그 불안과 함께 걷는 법만큼은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외대학보에서의 생활이었던 것 같다. 부디 앞으로의 외대학보가 지금까지의 기사들을 발판 삼아 더 넓은 시야로 학생 사회를 바라보고 더 깊은 책임감으로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내길 바란다. 다시 한번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불안 속에서도 질문하고 기사를 써내려 갈 외대학보의 새로운 기자들 에게 응원을 보낸다.

·현재우(외대학보 편집장)

## 기자들의 추천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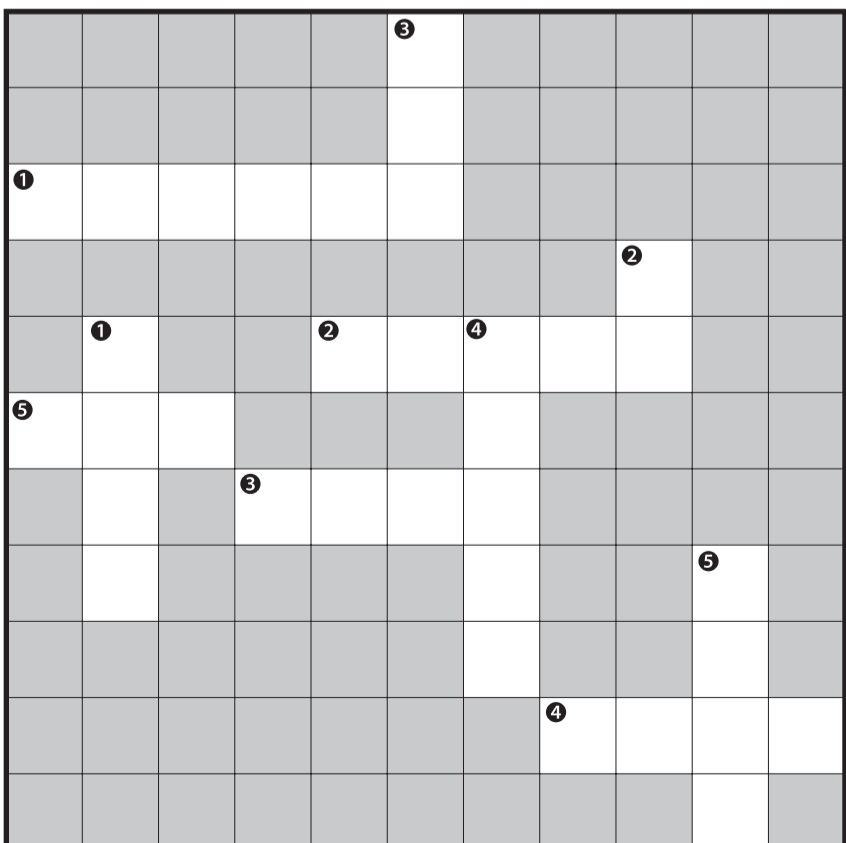


로만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모델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초속 5센티미터》의 시각 기호를 분석한 논문이다. 상징적 요소들이 작품의 감정과 서사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탐구하며 애니메이션 산업 속 문화예술적 가치와 기호학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람 간의 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점차 관계의 본질적인 의미와 그 이면에 지닌 책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해당 논문은 특히 관계를 중에서도 이성 간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썸타기'와 '어장관리'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 십자말풀이



### 가로

1.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 입학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 정하고 안정적인 대입 전형 운영을 통해 대학의 OOOOOO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표 재정지원사업이다. (1면 참조)
2. 본고과 70주년에 내건 OOOOO의 약속이 구호로만 머물지 않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 은 새로운 선언이 아니라 기존 선언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5면 참조)
3. 이후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동일한 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3면 참조)
4. 특히 서소문 OOOO는 하부에 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절단 과정 에서 참조) △낙하물 방지스문트 방지스 파편 방지스2차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 컸습니다.
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헌수막을 일반 OOO 헌수막처럼 지정 계시대에만 걸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정당이 소수정당의 정치적 표현 기호가 위촉되는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8면 참조)

### 세로

1. 이를 바탕으로 얼어붙은 취업 시장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 사회 초년생의 취업이 OOOO와 추가학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7면 참조)
2. 표준현장실습은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OO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2면 참조)
3. 마지막으로 총학 정책과 제휴 사업의 경우 재원 부담이라는 OOO 원칙을 존중하되 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정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3면 참조)
4. 이후 LG스포츠에서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스포츠 산업을 접했고 현재 OOOOO 재경팀 프로로 근무하며 스포츠 구단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2면 참조)
5. △독일△영국△프랑스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 역시 OOOO과 같은 혐오 표현에 대 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 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8면 참조)

※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10jaewoo@hufs.ac.kr

##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강기훈  
**편집인 겸 주간** 이상빈  
**편집장** 현재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스포츠 구단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김기남 GS스포츠 재경팀 프로를 만나다

김기남(상경·국통 99) 프로(이하 김 프로)는 우리대학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한 뒤 LG CNS에서 IT 분야 업무를 시작하며 기업의 비즈니스와 기술의 접점을 경험했다. 이후 GS스포츠에서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스포츠 산업을 접했고 현재 GS스포츠 재경팀 프로로 근무하며 스포츠 구단의 재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가 단순 경기를 넘어 △구단 운영△마케팅△선수 육성△콘텐츠△팬 경험이 결합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는 시대에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 프로를 만나보자.



Q1. 우리대학 국제통상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을 우리대학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보내며 자연스럽게 우리대학을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 상경계열 진학을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대학 상경계열로 입학 후 1학년을 마친 뒤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대학만의 글로벌한 교육 환경과 국제적인 시각을 경제·경영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국제통상학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국가 간 교역△글로벌 비즈니스△세계 시장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국제통상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2. 우리대학 재학 시절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재학 시절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글로벌 감각 함양△다양한 외국어 수업 수강△전공 수업을 통한 경제·경영 분야 이해 확대를 통해 폭넓은 교양을 쌓았습니다. 또한 축구를 좋아해 입학 후 곧바로 학교 중앙 동아리인 외대축구부에 가입해 선배들과 함께 활동하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외대축구부 주장으로 활동하며 준비한 2004년 외대월드컵입니다. 당시 우리대학 개교 50주년과 맞물려 단순한 교내 대회를 넘어 보다 의미 있고 규모 있는 행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아리보와의 이벤트 협업△방송사 취재 유치△외부 기업과의 스폰서십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했습니다. 결승전에는 연예인 축구팀을 초청했으며 행사가 KBS 스포츠뉴스에 소개되는 등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의 개교 50주년 기념 스포츠 행사 제안을 받아 외대월드컵과 글로벌팬즈 축구대회 우승 및 준우승팀이 맞붙는 '슈퍼컵'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켜보면 이 행사는 △기획△대외협력△마케팅△스폰서십△행사 운영 등 다양한 실무를 직접 경험한 소중한 기회였고 현재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데도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Q3. 스포츠와 관련된 직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스포츠 산업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인 LG CNS의 IT 분야 업무를 시작했고 전공과 거리가 있는 기술을 처음 배우며 기술 역 시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도구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 지식도 기업의 ERP\*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첫 파견지인 GS스포츠에서 LG트윈스와 LG세이커스의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스포츠 산업을 접했습니다. 이후 GS스포츠로 파견돼 FC서울과 GS칼텍스 서울Kixx의 IT 운영 업무를 맡았습니다. 평소 축구를 좋아했던 만큼 FC서울에서의 업무 경험은 저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으며 이를 계기로 스포츠 산업에 관심과 애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렇듯 △우연한 스포츠 분야 진입△즐거게 일할 수 있는 분야 발견△스포츠 산업에 더 깊이 이바지하고자 한 마음은 GS스포츠 합류로 이어졌습니다.

Q4. GS스포츠 재경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GS스포츠 재경팀은 일반 기업의 경영지원 조직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크게 △자산관리△회계 및 자금 △IT 운영 세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계 및 자금 부문은 △관리회계△세무△자금 운용△재무회계 등 회사의 재무 전반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IT 운영 부문은 회사의 IT 전략 기획과 시스템 운영을 담당해 구단의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훈련장 시설과 인프라를 관리하고 선수단이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경팀은 주요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자산을 관리하고 구단 운영 전반을 뒷받칩니다.

Q5. 일반 기업과 스포츠 구단의 재경 업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스포츠 구단의 재경 업무는 일반적인 경영지원 업무에 스포츠 산업 특유의 비즈니스와 자산 관리 요소가 더해진 분야입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일반 기업과 유사하지만 스포츠 구단만의 특수한 비즈니스 구조가 존재합니다. 스포츠 구단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 사업△상품 판매△선수 이적료△스폰서십△티켓 판매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선수단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일반 기업에서

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선수 이적이나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회계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해외 구단이나 선수와의 계약도 빈번한 만큼 국제 거래와 관련된 업무도 많아 △국제 조세△외환 거래△원천세 등 다양한 세무 이슈를 검토해야 합니다. 훈련장과 각종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만큼 추가로 △부동산 관리 △시설 유지보수△인프라 투자 등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무엇보다 스포츠 구단은 팬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따라서 팬들의 니즈와 소비 방식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DX 역량도 중요합니다. 결국 스포츠 구단의 재경 업무는 일반 기업의 재무·회계 업무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선수단 운영 △세무 및 자산 관리△팬 비즈니스 등 스포츠 산업 특유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6. 업무를 하시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IT 업무를 하며 구단의 DX(Digital Transformation)\*\*를 추진한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구단과 팬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모바일 앱 개발△스마트 경기장 구축△CRM\*\*\*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참고할만한 사례가 많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스포츠 산업에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회계 업무를 전담했던 시기입니다. IT 운영 업무 외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회계 업무를 병행해 왔으며 회계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이후에는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부담도 컸지만 회사의 재무와 운영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후 업무를 안정적으로 인계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7. 최근 스포츠 산업의 가장 큰 변화나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최근 스포츠 산업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팬 경험을 고도화하고 혁신하려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경기 결과와 스타 선수가 팬과 구단을 연결하는 중심점이었다면 현재는 △경기장 방문△상품 구매△콘텐츠 소비까지 팬의 모든 경험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빅데이터△AI△CRM 등을 활용해 팬의 관심사와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마케팅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스포츠 구단은 지속적인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기장 역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팬 경험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8.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련 직종을 희망하는 우리대학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산업에서 일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스포츠 구단도 하나의 기업인 만큼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므로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스포츠 분야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길 권합니다. 또한 대학 시절에 △대외활동△동아리△학생회 등 다양한 경험에 도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스포츠 산업은 국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대학 학생들의 강점인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한 시각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어떤 직무를 선택하든 본인만의 전문성을 꾸준히 키우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의 △구매 △생산 △인사 △회계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DX(Digital Transformation):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 수행 방식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디지털 전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관계를 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정일성 기자 12ilseong@hufs.ac.kr

투자실용주의

정통 주식 운용의 名家(명가)

유니스토리자산운용

한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도약, 그 시작을 함께합니다.

Since 2020  
UNIS ORY

사람과 함께하는 세상의 큰 틀, **성신양회**가 만들어갑니다.

시장이 외면할 때도 우리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자산운용시장의 불모지에서 시작하여,  
주식시장이 외면받던 시기에도  
본질과 원칙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유행과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고객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펀드 본연의 철학과 정신에 충실했습니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우리의 운용 역량을 인정한 이후에도  
유니스토리는 연구와 검증을 통해  
운용의 깊이와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정통 주식운용의 자존심!  
유니스토리자산운용이 지켜 가겠습니다.

SUNGSHIN 성신양회주식회사